

“마음 열면 종교벽 허물어져요”

인터넷 종교간 화해 사이트 눈길

부처님오신날 가톨릭계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사찰에서 축하 플래카드를 거는 등 종교간 화해를 위한 시도가 관심을 모으는 요즘 사이버 세상에서도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사이트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
(http://www.believers.co.kr)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국내의 종교인들이 서로간의 아집을 버리고 대화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토론방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토론이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이 개신교 가톨릭계열이지만 이 가운데 '부처는 새로운 신인가, 인간인가' '기독교의 불교의 유사성에 대한 토론의 장' '유교와 불교의 차이' 등 불교와 관련된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종교가 다른 집안끼리의 결혼에 대한 문제 등도 토

론방에 개설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생활 속의 종교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아쉬운 점은 기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 이 사이트 내에서는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방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불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진리는 하나' 등 토론방·자료방 개설 불교·개신교·유교 다양한 교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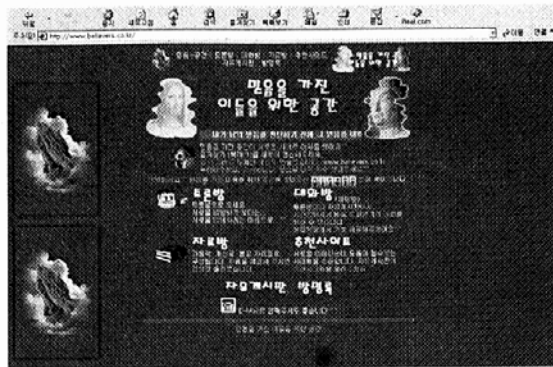
타종교인들이 불교를 잘못 알고 있어도 바르게 지적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교 왜곡의 문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자들이 이런 종교간의 대화 사이트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남의 믿음을 판단하기 전에 그 믿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모토를 내세

우며 개설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이외에도 대화방, 자료방, 추천사이트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자료방에는 금강경, 불교교리강좌, 교황그는 누구인가?, 마리아는 누구인가?, 예수그리스도, 성경(성서)의 형성과정, 가톨릭교회와 진화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 신세대와 기독교,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 종교마다 십계명이 조금씩 다르다, 창조론 비판 등 다양한 각

종교의 교리, 역사 등을 담은 글이 올라와 있다.

진리는 하나

(http://147.46.37.204/myweb/index.htm)
불교의 참선법, 기독교 설교, 신약어행 등의 강의로 볼 수 있고, 법정스님의 동영상 설법도 볼 수 있는 곳이다. 종교영화 코너를



통해 각 종교를 주제·소재로 선택한 영화들에 대한 비평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사이트만의 독특한 매력. 사랑합니다 코너에는 소책자 마을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는 등 종교인의 보살행을 권고하고 있다.

나의 삼 나의 종교
(http://myreligion.com.ne.kr)
종교 간의 화해를 목적으로 활

◇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을 방문하면 불교교리강좌를 비롯해 성경 형성과정,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종교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동을 펼치고 있다. 개설된지 몇 달 되지 않아 아직 왕성한 활동은 없지만 각 종교 자료 등을 서비스 하면서 각 코너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이다.

이들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는 서준호씨는 "종교의 문화와 그 종교의 가르침을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분들이 많아 여러가지를 배운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면지"



유 신 열
(KBS 재원관리국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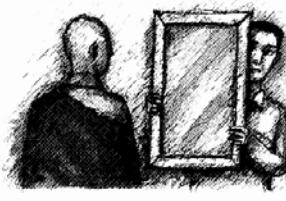
지난 7월 초 조계종 포교원에서 주최한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에 참가를 하였다. 나 자신도 내가 속한 직장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는데 미력이나마 참여하고 있기에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을 하였다.

지금까지 사찰중심, 스님중심으로 진행되던 신행활동이 사회의 다양한 일터에서 순수 재가자 중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대중불교로 변해가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서로의 고민을 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인 자리였다.

참가자 모두의 얼굴에 부처님의 모습이 깃들여 있었으며 이제 우리의 불교도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환희심속에 다시 한 번 신심을 증강하고 불법 홍포라는 원력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사실 직장에서 교유 업무 이외에 신행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희생이 담겨야 되어야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대사회적인 봉사 활동 전개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불교의 앞날을 짚어준 교육 현장과 군내 포교에 전 불교계가 한마음을 합쳐서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이처럼 직장직능 불교 활동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군에서 의 신행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건실한 기반 구축이 그 성공 여부의 핵심이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그간 몇 번의 조계종 분류구분인 사회적인 위상 실추로 일



“가깝고 낮고 편안한 불교”

자생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을 구현하는 이들이야말로 참다운 불자의 표상이요, 자리아타 정신을 실천하는 보살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직장 및 직능 단체 내에서 신행 활동의 환경은 열악하고 그 토양은 척박하기만 하다. 조직 내에서 불자를 찾기 어렵고 또한 적은 수의 불자조차도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찾아 보기는 커녕 불자의식이 결여되어 그 결속력과 응집력 면에서 타종교에 비교해 볼 때 부끄러움이 앞서는 실정이다.

게다가 매번 법회 장소의 확보, 법사 스님의 섭외,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속리산 법주사 대응 전 부처님 앞에서 직장직능 신행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불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불교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교계와 사찰에서는 외형적인 불사를 지양하고 불교 발전의 백년대계인 신도들에

선 포교 현장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깝고 낮은 불교, 쉽고 편안한 불교를 이 시대에 원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치유할 수 있는 청량제로서의 부처님과 스님을 버리고 있다.

그리고 신행 단체 내부적인 문제로 법회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차별화 구현, 대 사회적인 활동의 전개, 불자 구성원간의 결집력 강화를 위한 신행 지도자들의 희생적인 원력이 더욱 필요하며 특히 개별 단체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포교원과 공동으로 동일 직종, 직능간의 연계체제(network)를 구축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직장직능 법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부처님전에 기도한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내 신행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내를 갖고 사부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처님의 바른 법을 행한다면 가까운 훗날 직장직능 신행 단체의 어려움은 해소되고 불국토 건설의 꿈과 불교의 발전은 희망적일 것이다.

직장직능 연합대법회 실무위원 14명 선정

10월에 열릴 직장·직능 연합대법회(279호 5면 기사참조)를 준비할 실무진이 구성됐다. 이에 따라 연합대법회 준비가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교불연, 감사원 등 20여개 직장·직능 지도자 25명은 14일 포교원 2층 제 1강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연합대법회 동행위원회' 실무위원 14명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실무위원들은 앞으로 실무위원회의를 열어 연합대법회 주제 및 장소선정, 주요행사 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연합대법회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했다.

우리 모임에선

관악구청 불심회 정기법회

관악구청 불심회(회장 정재명)는 20일 임제선원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가졌다. 7월 31일부로 명예퇴직을 하는 김운옥, 한장삼 회원의 환송식을 겸한 이번 법회에서는 중성 스님이 법문과 육조단경을 강의했다.

금강애리 불정암 순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애리(회장 이진홍)는 15~16일 이틀간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44명이 참석한 이번 성지순례는 서울을 출발해 설악산 대청봉, 중청봉, 서청봉을 등반하고 불정암, 영시암, 백담사를 참배했다.

구미시청불자회 강좌 회향

구미시청불자회(회장 신영근)는 '시청불교대학 강좌 특별과정' 회향식을 20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가졌다. 지난 4월 20일부터 3개월간 매주 목요일에 실시된 이번 특별과정 강좌에는 20여명의 초심자들이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등을 배웠다. 구미시청불자회는 사찰순례, 신행단체 방문교류 등을 통해 신심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연불회 5대보궁 순례

동아대병원 연불회(회장 박옥규)는 15~17일 2박3일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통도사, 상원사, 불정암, 정암사, 법흥사 등 전국 5대 적멸보궁을 참배한 이번 성지순례는 13명의 회원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을 1월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렸던 교불연 거울수련회. 이번 거울수련회에서 교사불자들은 티미수련을 통해 신심을 키우고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교사불자련 테마수련회 연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테마가 있는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교사불자 발굴은 물론 불교학제와 연계 강연을 모색할 방침이어서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광주지부는 보성 대원사에서 24~28일까지 '합선 및 기공수행'의 초심자과정과 31~8월 5일까지 '위파사나 수행' 전문과정 수련회를 개최한다. 선무도, 좌선기공, 염불기공 등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이번 수련회는 이미 120

여 전국 초종교 선생님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 서울 경기지부가 주관하는 수련회는 8월 12~14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합선과 염불'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련회는 참석실수와 반야심경 사경, 월정사 일주문 등도 진행된다.

경남지부도 고성 육천사에서 8월18~20일 '대승불교와 선'이란 주제로 대승불교와 보살행, 대승불교와 선 등의 강의 중심 수련회를 개최한다. 011-740-9494(조건국)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클릭! 새 홈 페이지

- 아미타(http://cafe.daum.net/amital)-7월14일 개설. 정보신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곳.
- 화염연기차회(http://cafe.daum.net/yonglichia)-7월13일 개설. 화염연기(茶) 회원을 위한 홈페이지.
- 삼광사학사회(http://cafe.daum.net/sam4)-7월8일 개설. 천태종 삼광사 학사회 회원들의 모임터.
- 법사회(http://cafe.daum.net/bupsa)-6월28일 개설. 대한불교법사회 법사회 기자단이 만

들어가는 홈

- 166 깨달음의 장(http://cafe.daum.net/perceive)-7월15일 개설. 166자 깨달음의 장 회원들의 공간.
 - 한마음 선원 학생회를 거쳐 가셨다면(http://cafe.daum.net/hanmaumst)-7월18일 개설. 한마음선원 학생회 출신 불자들을 위한 모임.
 - 초기불경연전법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haklimdharma)-7월1일 개설. 정보리회 김재영 지도법사의 교리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에게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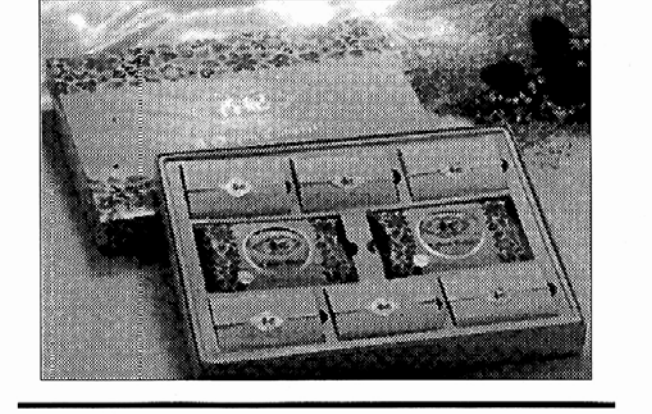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양의향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랄한(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랄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 억제 효과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랄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200-4545 (02)755-9821

제염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꽤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다음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자궁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삼이 편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